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UAM법,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것”

22일 '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에서 “UAM 어떻게 준비 중인가” 특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2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주최한 '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 약 10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항공·우주분야 산·학·연 최고위층 리더들이 모여, 미래 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설된 '항공우주최고위과정(Aerospace Advanced Business Program)'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의 기조 특별강연을 맡은 원 장관은 “UAM을 통해 안전·소음 등의 문제로 항공 분야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도심 속 하늘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면서, “'25년 UAM 상용화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궁극해하는 정책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보려 노력했다”며 특강의 문을 열었다.

먼저, 원 장관은 “성공적인 UAM 상용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하지 않으면 날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

소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에게는 '25년 상용화 사업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4월 도심지 실증을 위해 한강을 따라 김포~잠실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원 장관은 “신산업 초기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로 인한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UAM법도 조속히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AI 교통관리, 3D 스캐닝 정비 등 UAM 핵심기술 R&D 계획,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동향 및 민·관 소통체계인 UAM Team Korea 확대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 실증사업에 Joby(미국), Beta(미국), Vertical(영국), Autoflight(중국·독일), Jaunt(캐나다) 등 전 세계의 우수한 기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NASA\* 등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



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해외 어디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20년 전에 12초간 36m를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인류의 생활범위를 하늘로 넓혔듯이, UAM은 도심 속 모빌리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 새롭고 신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최광수/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 관광 활성화’ 홍보 힘 모아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참여..도의회 차원 지원 총력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완도1)가 지난 21일, 22일 이틀 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전남 관광’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았다.

이재태 부위원장과 상임위 소속 위원(이광일, 나광국, 최정훈, 류기준, 한숙경)들은 첫 날 열린 개막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다음 날 22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104회 전국체육대회 등 대형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이벤트와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힐링의 이미지를 지닌 전남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꾸준히 주문해 왔고, 이에 전남도는 무사증 발급 허용 건의, 해외 전세기 유치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전남관광 설명회에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정해명/기자



# 경북소방-한국전력 경북본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

전력선로 및 전기설비 관리 등 사회기반시설 정보 공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한국전력 경북본부와 지난 22일 경북도청 119작전회의실에서 “산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시 전력선로 및 전기시설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정보 공유 △산불 대응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송전탑 등 설비 정보 제공 △대형 산불 등 발생 시 한국전력 119 재난구조단 적극 지원 △한국전력 KEPCO119 재난구조단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불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화재진압 시 배전선로의 긴급유전으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경북 소방본부와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 위생용품 포름알데히드 잔류량 조사.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222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기저귀 100건, 식품접객업 소화 물티슈 32건, 일회용 면봉 25건, 화장지 21건(미용 화장지 11건, 화장실용 화장지 10건), 일회용 행주 13건, 일회용 타월 16건(키친타월 13건, 핸드타월 3건), 일회용 종이 냅킨 9건, 일회용 빨대(종이제) 6건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 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오염돼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화장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고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봄여행, 즐길 준비 되셨나요?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새희망! 새울릉!



오는 24일, 송파구서 아시아 플라멩코 축제 열린다!



# 서울시, 밥상물가 부담 덜어준다... 대파 20톤 38% 할인판매

## 시-농수산물공사-롯데마트-대아청과(주) 민관협력, 농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

서울시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롯데마트(대표이사 강성현) ▲대아청과(주)(대표 이상용)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문영표)와 협력해 유통·판매마진을 최소화한 대파 2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일환이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종(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중 가격급등 품목을 선정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최근 가격과 산지 동향, 품질 상태 등을 따져 선정한 올해 첫 품목은 대파다.

3월 3주('23.3.13.~3.17.) 가격 시장 대파(1kg/특품) 평균 경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2% 상승했다. 공급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이며,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개소)와 롯데슈퍼(58개소)에서 최고 품질의 1kg 대파 한 단을 2,990원(2단 구매 시 5,000원)에 판매한다. 3월 4주 기준 롯데마트물 대파 700g 가격이 3,390원(100g당 약 484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8% 저렴한 셈이다. 착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대파를 공급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더했다. 먼저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주)'는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한 후 판매마진 없이 롯데마트에 대파를 공급한다. 롯데마트도 최소 마진으로 소비자에게 대

파를 판매하고 판촉,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아청과(주)는 생산자에게 박스당 약 1,500원 소요되는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도 물류 운송비용을 생산자에게 지원해 원가를 좀 더 낮추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한다. 시는 앞으로도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수산물 중 추가로 품목을 선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이사는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물유통담당관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가격 부담이 높아졌다"며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관 이 뜻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농산물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평수/기자

## '취업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송파구, 취업멘토링 운영

청년 구직자 위해 취업멘토링 '취업든든' 운영...3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송파구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취업든든'을 새롭게 운영한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지난달 50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구는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펼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 '취업든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매월 화요일, 목요일 오후 15시에 2시간씩 진행된다. 지난 3월 14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화요일에는 구직역량 강화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역량진단검사,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대비, 이력서 작성법 등부터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을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배울 수 있다. 목요일에는 현직자들을 초빙한 직무멘토링이 실시된다. 최근 직무능력 중심에 따른 채용 트렌드에 맞춰

마케팅, 연구개발, IT 등 16개 분야 현직자들이 희망 직무별 주요 과업과 필요 역량,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한 올바른 계획수립, 준비법 등을 알려준다. 이 밖에도 구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스킬을 익히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1 맞춤형 심층취업 상담 서비스인 '잡(job)트니스'는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성격 및 직업 심리 검사, AI/VR 면접 체험,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최대 3회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다. 서비스 이용 및 일자리 상담이 필요하면 센터로 방문(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지하1층 190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년들이 송파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 영등포구, 꿈과 소망, 미래를 나무에 심다...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개최

3.22. 주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개최...공원에 6,000여 그루 식재



영등포구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신길9구역 근린공원 등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 잔)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경유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구는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들은 복사기 나무, 산수유 나무, 꽃사과 나무 등 총 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참여자들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한 그루마다 식재 정보, 꿈, 소망을 적은 표찰을 걸며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구는 행사 종료 후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톨립과 수선화 꽃모를 분양했다. 덧붙여 구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3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나무나 꽃을 심은 후 인증샷과 후기를 구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면적이 부족하지만, 나무심기를 통하여 도시 숲 가꾸기에 총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일은 미래와 꿈, 희망을 심는 일이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소망과 함께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란다"라며 "오늘 가장 많이 심은 복사기나무의 꽃말은 '약속'이다. 복사기 나무의 꽃말처럼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위해 도심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 영등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관악구, '미래를 꿈꾸는 도시,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

관악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ESG정책을 도입하고, 지난 3월 21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ESG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환경(Environment)'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회(Social)'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등을 뜻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에 구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지난 2월 '관악형 ESG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 더(The) ESG 관악' 비전 아래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 사회경제적 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렴도 향상 등 분야별 총 46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에는 서울대학교 등 유관기관, 관내 기업,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선도적인 'ESG 정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퓨전 국악 축하무대와 함께 시작한 선포식은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의 'ESG 소개', 서울대 정혜

진 교수의 '연구 사례', 사회적기업 ㈜다솔 송수연 대표의 '실천 사례' 등을 나누며 지역 주민, 유관 기관들과 ESG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ESG 비전 선언문도 함께 낭독했다. 특히, 행사의 마지막에는 노인, 어린이,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하는 주민 대표와 참석자 모두가 '더(The) ESG 관악'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ESG실현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폐페트병을 파쇄해 자원순환 제품으로 만드는 기기 체험, 탄소중립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구는 오는 5월에는 'ESG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올해 안으로 'ESG 경영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여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ESG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관악구는 앞으로도 주민, 기업, 시민단체, 언론, 서울대학교,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성동구, 오는 25일 시대를 바꾸는 흐름 챗GPT 특강 개최

이달 25일 오전 10시 금호동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에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대화형 AI 인공지능 특강

서울 성동구가 최근 주목을 받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특강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금호동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센터에서 진행한다. '챗GPT'는 대량의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 형태의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문장을 생성하여 처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번 '챗GPT' 특강은 최신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익히고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참여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성동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강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성동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구 평생학습관은 챗GPT, 메타

시대의 대변자 ChatGPT의 이해와 활용

일 시 : 3.25.(토) 10:00-11:30  
 접수 : 3.20.(목) 09:00부터-마감시까지  
 성동구 평생학습관 통합예약 홈페이지 (www.sd.go.kr/reserve)  
 강사 : 김학영(IT 전문강사(직서: 알비엔트))  
 수강방법 : 대면강의(평생학습관 강의실)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 : 02-2286-7807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일정 및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버스 수업 등 구민들의 미래 역량 발전을 위해 최신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월호 성동구청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 시대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다"라며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 성동구는 구민의 신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에게 “다시 뛰는 수원특례시, 함께 만들어나가자”

#### 6급 공직자들과 ‘2023 소통간담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급 공직자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다시 뛰는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소통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6급 공직자 8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제성장률 등 수원시의 경제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수원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공직자들이 수원시의 현실을 인지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은 문화·예술·체육이 강한, 살기 좋은 도시”라며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의 ‘철학과 비전’ 발표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 첨단기업 유치 ▲수원형 마을단위 통합돌봄 ▲‘누구나 시장’ 플랫폼 운영 ▲새빛민원실(혁신민원실) 운영 등 시정 핵심정책 발표, 6급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이어졌다.

조혜영/기자

### ‘여성친화도시’ 인천 남동구, 사회적 약자 안전에 주력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제78회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는 도시공학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여성정책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여성 일자리전문가, 국민운동단체, 공무원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협의·조정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남동구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구현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올해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은 성인지적 감수성 확보한 뉴미디어

활용사업 추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마을 주도의 돌봄공간 조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 등이다. 신규사업으로는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홀몸노인 안부확인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공모한 ‘2023년 여성 친화 공모사업’의 최종심사도 진행했다. 사업별로 남동구의 특색에 맞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중 남동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장인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 하남시, 하남선 지하철 상가 등 부대사업 민간위탁 입찰 추진

하남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잠정 연기됐던 하남선역사내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입찰 공고가 23일 실시하고, 4월 5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회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상가 등 각 분야별 감성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입찰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초 기초가보다 대폭 낮춰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관심도가 높은 임대상가(총 11곳)는 4개 역별로 편의점 1개소씩 4개소와 기타 7개소는 자유 업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광고게시대는 4개역 총 76개소를 일괄입찰하게 된다. 4개 역에 총 20개인 편의시설도 ▲현금지급기(4) ▲자동빨래기(4) ▲물품보관함(3)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9개)를 각각 종류별로 일괄입찰하게 된다. 다만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는 ‘하

남시 거주 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입찰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입찰서류 제출은 23일 오전 11시부터 4월 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오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실시한다. 시는 이번 입찰이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유통인구 증가, 역사 주변 상점가의 광고문의 쇄도 등을 감안하면 원만한 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편의점 입점 등 부대사업 활성화가 역사 활성화로 연계돼 시의 부대수의 증대는 물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하남선 지하철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 경기도, 기술 창업분야 새싹기업에 최대 3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 도, 스타트업 엠앤에이(M&A)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기술 창업 분야 도내 새싹 기업에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엠앤에이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투자 유치한 도내 기술 창업 분야 7년 이내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사업화 자금은 사업 협약 후 올 10월까지 아이템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4월 7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6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린 새싹 기업은 ‘스타트업 엠앤에이(M&A) 지원센터’와 중개·자문기관을 통해 관련 법률, 회계,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평원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최근 새싹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을 고려하는 새싹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엠앤에이(M&A) 지원센터는 새싹 기업의 성공적인 자금회수와 재투자 및 재창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외 인수합병(M&A),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 지원, 교육 및 교류회, 인수합병(M&A)/투자 매칭데이 프로그램 등 새싹 기업의 투자/인수합병(M&A)에 특화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혜영/기자



### 오산시,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추진 간담회 가져

오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선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산경찰서, 안심귀갓길 참여 13개 단체 대표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에 대한 사업계획과 오는 27일 열리는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선포 행사’에 대한 추진계획, 지원 및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결동 원동밀집지역 ▲오색시장 일대 ▲문화의거리 일대 등 야간 범죄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취약지역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노승일 시민안전국장은 “앞으로 민간단체 및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귀갓길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매일 다섯째 주 월요일을 안심 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로 선정하여 시 전

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 치안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3월 27일 오후 9시 시청 광장에서 ‘2023년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의 날 선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 시흥시, 식목일 행사 적극 추진...오난산 전망공원에 영산홍 2만주 심는다

시흥시가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를 오난산 전망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시청 직원 및 은계상가연합회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해 영산홍 20,000주를 식재한다. 식전행사로 산복 진화행기를 활용한 진화 시연을 선보여 산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오난산 전망공원은 봄이 오면 분홍빛으로 물든 진달래를 비롯해, 활짝 핀 벚꽃이 아름다운 곳으로, 시는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시흥시 녹지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흥 곳곳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11시부터 은계호수공원에서는 은계상가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은계 로컬크리에이터 ‘이곳은 꽃들이 있는 세상이다’ 식목 행사가 시민들과 함께한다. 아름다운 봄꽃을 보다 가깝고 선을 만끽하는 ‘가야금 버스킹(거리공연)’과 다양한 체험(재활용 종이로 꽃모빌 만들기, 밀밭초 만들기, 색종이 꽃 접기, 꽃꽂이 만들기 등)이 무료로 준비돼 있어 은계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지상화 휴게시설' 방문...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적극 추진 중인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이 지난 22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방문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오후 4시 관악부영아파트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방문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곳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대표단들과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장의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휴식권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며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현실을 더 이상 안양시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안구의 관악부영아파트가 신청한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선정해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완료하고,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 중이다. 이 휴게시설은 2개동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바닥기초공사, 배관공사, 전기선돌베널, 에어컨 설치 등에 들어간 총 공사비 2746만원 중 70%인 1850만원을 시가 지원했다. 특히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4월 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

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총 14곳에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2곳을 포함해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 2023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일산서구 관내 단독경로당 30개소 및 으뜸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사의 시급을 요하는 노후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도배 △장판·벽지 △바닥 교체 △지붕 보수 △외벽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대

상으로 한다. 일산서구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최근 3년간의 지원 횟수, 노후도 및 보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중 1순위를 대상으로 연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발생 시 수시 개보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보수시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절약 효과 장치 등을 적용하여 경

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만남과 소통의 장인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공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성남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단속

## 새학기 맞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업소 관계기관 합동 단속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22일 분당경찰서와 함께 직접 현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남 관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위치한 불법영업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분당경찰서(서장 모상모)에서 점검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업소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분당경찰서 관계자와 사전 협의회를 가졌고 22일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또한 오는 31일까지 개학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성남 관내 학교 주변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확인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합동단속 내용은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룸카페, 마사지 등 신·변종업소 영업 행위 및 시설 위반 단속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 △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

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등으로 학교 주변 업소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3학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개정된 학교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온전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전한 교육현장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 예산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예산군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에는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군은 약 3시간만에 조기 진압을 완료했다.

군은 산불신고 접수 후 최재규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5대, 소방차 6대, 헬기 6대, 공무원 405명, 소방대원 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부여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 12명 등 637명을 현장에 조기 배치해 산불확산을 저지했다.

특히 주민 대피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등 발빠른 군의 대처로 민가로의 확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피해 면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피해면적은 2ha로 추정되며, 군은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가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발두령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

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 부천시, 주정차 단속 전화로 알려준다... '지자체 최초'

이달 17일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 전면 시행... 시민 부담 감소 기대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주정차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한다.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이 넘어가면 전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시 전역의 고정형 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단속일 경우에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기 휴대정보단말기(PDA) 및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 발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은 알림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안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원활한 교통 상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정차단속 음성(ARS) 알림서비스가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 문자, 음성 서비스 오픈**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3월 17일부터 음성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주정차금지 구역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

문의 1234-5678

# 안성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안성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공시설 39개 부서 및 산불진화 헬기장,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19개 도급사업장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파악 및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정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

른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매분기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안성시는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를 팀장급 이상으로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했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와 사업장 관리감독자, 중대산업재해팀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확보 여부를 확인했으며, 점검결과 현장에서 파악된 미비한 사항은 추후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도 중요하므로 2023년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NH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동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자립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통영시 천영기 시장, 미FDA 방한점검 대비 지정해역 현장점검 실시

## 철저한 육·해상 오염원 관리로 성공적인 점검 완수에 만전

천영기 통영시장은 2023년 미FDA 방한점검에 대비해 지난 3월 22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4월에 예정된 미FDA 방한 점검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년만의 점검이니 만큼 세밀한 점검이 예상되어 통영시는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가정집 정화조 등 육·해상 오염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점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2023년 미FDA 지정해역 위생점검은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 수출이 걸린 만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성공적인 점검 완수에 수산1번지 자존심 회복과 세계가 인정한 청정바다 통영

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광명시, 드론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사각지대 없앤다

광명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여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광명시는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 및 알림 등 5개 분야 총 35개 과제를 추진해 봄철 초미세먼지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시는 봄철 황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악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명동, 철산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장 2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공사장 지형지물에 의한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 공사장 상공에서 먼지 발생 의심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물시위의 비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전담 배치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고창군, 군민행복시대 열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창군은 23일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특별히 김기섭 1일 명예 청년군수가 참여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약사업의 내실있고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민선8기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실현을 위해 6대분야 15대전략 80대 과제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한 '고창군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감염병 전담조직 강화', '쉽고 빠른 규제개혁 원스톱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 정상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콘도,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방과 후 돌봄시설 시스템 강화', '내·외국인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파크골프장 확충',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5개 사업이며, 공모기간 미도래로 인해 아직 미착수 사업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역시 공

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와 진행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해주어야 고창군을 발전시키고 군민행복, 활력고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공약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공감을 해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 전북도, 위도 찾아 가뭄 현황 점검...총력 대응

#### 허전 도민안전실장, 위도 현황 점검 및 가뭄대책사업 조기 완료 주문

전북도는 22일 기록적인 가뭄으로 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불안 위도를 방문해 가뭄대책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부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위도면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위도 저수지에서 가뭄 및 물 부족 상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가뭄 대책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관정 개발 현장을 찾아 조속한 공사추진과 중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부안군은 작년 부터 28백만 원을 투입해 위도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부유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했다. 또 노후 상수관로 누수탐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일 누수량을 410m에서 300m까지 줄이는 등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고세 10억 원을 확보해 지하수 관정 5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위도지역 물 부족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방송 및 생활수칙 안내



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통해 물 절약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는 특고세 총 57억 원을 투자해 위도를 포함한 도내 가뭄 지역 8개 시군에 관정 총 64공, 양수장 2개소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사를 4월 중 완료해 가뭄 극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으며, 도민들께서도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가뭄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기 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부안 위도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위도의 최근 1년 강수량은 964.2mm로 평년 대비 78%에 그치고 있으며, 수원이진 위도 저수지의 저수율은 16.7%를 기록하는 등 위도와 인근 도서 주민 1,100여 명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남승/기자

### 김제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박차!

김제시는 올해 만경읍 등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10개소를 구축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CO2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점진적으로 보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전기자동차의 충전소 필요성이 증가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읍·면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설치했다. 현재 김제시는 145개의 이용자 제한이 없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나 주로 도심지역에 분포하여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주민들이 시내까지 나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김제시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응모 중이며,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19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김제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김현태/기자

### 익산시, 생태축복원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위, 6년간 대장정 마칩표

####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해산식 개최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의 생태계를 살려 '치유마을'로 이끈 민관협의회가 6년간의 대장정을 끝을 알렸다. 시는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로 이뤄진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22일 해산한다고 밝혔다.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에서 개최된 해산식에는 정현철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김승현 민관협의회 위원장과 위원 및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 참여형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된 후 주민 알·발병 원인 규명과 주변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해 6년여간 활동했으며, 이들의 성과는 장점마을을 치유·회복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데 적극 반영됐다. 특히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방향 수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과 장점마을의 특수성이 복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장점마을은 토지매입비 포함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금강농산 주변 부지에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및 동식물 서식처 복원, 생태시설물 조성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사고를 극복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한 정현철 시장과 김수홍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승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내고장 피해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참여한 이후 민관협의회 활동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감개무량하다"며 "우리 마을주민들의 아픔



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더욱 더 뜻 깊다"고 전했다. 정현철 시장은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수달 등 자연생태 서식처로 변모되는 등 장점마을이 다시 친환경 마을로 옛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지대했다"며 "오늘 비록 민관협의회가 해산하지만 그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맘껏 숨 쉬는' 대기환경 으뜸도시 전주 만든다!

####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업지역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키로

전주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공업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과 드론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사업장이 실시하는 자가측정 외에도 추가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의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

장이 밀집된 팔복동 공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민간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주·야간 순찰을 통해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악취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한 시는 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하고, 대기오염 심화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환경감시용 드론도 운용한다. 환경감시용 드론은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7개 항목(NO2, SO2, VOCs, CO, H2S, NH3, O3)을 측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 대기질 실태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김승일/기자

이와 함께 시는 강화된 지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돕기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택 전주시 북지환경국장은 "그간 법령에 한정된 관리 관행을 벗어나 대기오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 으뜸 도시 전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남원시, 영농부산물, 소각 대신 파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어요"

#### 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현장 운동 펼쳐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1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인근 농경지에서 산림청, 농협중앙회(NH농협), 남원시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기관 합동으로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정리를 홍보하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깨끗한 농촌 마을 만들기 및 산불·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남원시 농촌지도자회(사무국장 강일천)와 생활개선회(회장 배경희) 등 농업인단체는 관행적으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감하고 결의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이행에 다짐하고, 농경지 주변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을 수거·정리하는 정화 활동을 펼치고, 농업 및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부산물 파쇄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재호 농촌진

흥청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천일 NH농협경제지주 경제기획본부장,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등은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활용한 파쇄작업을 시연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수고 퇴비로 만들어 경작지에 뿌리면 토양 비옥도 증진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파쇄기는 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를 위해 서라도 영농부산물은 소각 대신 파쇄 후 퇴비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남승/기자



이남승/기자

### 장수로 "문화유산 소풍" 왔어요

22일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직원 10여 명이 전북지역 '문화유산 소풍' 현장 방문 1호로 장수군을 찾았다. 전라북도는 문화유산 1,000건 시대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역 내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문화유산 정책사업 발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소풍'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문화유산 현장 방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소풍'의 첫 방문지로 장수군으로 정하고 발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침곡리 유물산포지'를 찾아 발굴조사 현장의 진행절차, 유적설명, 현장 체험 등을 체험하고 교육형 소풍은 문화유산 학술연구 방법 및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이후 장수군과 남원시의 경계에 자리한 봉서리 산성(남원·성시리 산성)을 찾아 문화유산의 역사성 및 가치를 통한 문화재 지정 공동추진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봉서리 산성 내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영월암을 찾았다. 영월암은 달이 오래 비치는 절이라 해 붙여진 이름으로 1910년 창건됐다.

천선미 국장은 "장수군에 자리한 유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과제 및 방향성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문화유산 소풍 1호로 방문한 장수군의 문화유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임민규 장수군 문화관광과장

은 "장수군은 그동안 문화유산 돌봄과 학술연구를 지속 추진해 국가사적 2개소의 지정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수군의 역사문화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박승오/기자



박승오/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AI·모빌리티 투자유치 수도권 공략



광주시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민선 8기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7기 수도권 경제투자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투자자문단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인사로 경제계와 법조계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날 자문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해 수도권 경제투자자문단을 총 20명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 간이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경제동향 파악, 투자 의향 기업과 타깃 기업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류경선 (☎)아주디자인그룹 회장, 박주형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한진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신경열 TY홀딩스 미디어담당 사장, 배용주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민선

8기 시장 현안 공유, 광주시 미래 비전 전략, 투자유치 방향 등에 대한 제안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류경선 (☎)아주디자인그룹 회장은 "광주시가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갖춘 자문위원들과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며 "광주에 애정이 큰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단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향인 광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애정을 쏟아부어서 감사하다"며 "인공지능(AI)과 자동차를 양 날개 삼아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한다. 산업을 키워 동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기쁜 소식도 연이어 들리는 만큼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산업의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투자유치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고, 이를 견인할 앵커기업과 유망기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완도 청산도 구들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50억 확보

완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도 청산도 구들장은 농업유산지구 내 핵심보전 구역에 위치한 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 철거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된 공간에는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 주택 제공 및 복원된 구들장은 제공으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숙원 사업인 복합문화시설 및 세계농업유산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50억(국비 25억, 도비 7.5억, 군비 17.5억)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산도를 귀농귀촌 유입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면서 덧붙여 "전통 농업, 문화경관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고 치유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나주시 빚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베이비 마사지 교실' 큰 호응

#### 생후 3~8개월 성장 발육 도움... 아기와 정서적 교감, 육아 자신감 키워

나주시 빚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감터치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된 초보 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생후 3~8개월이 된 아기의 성장발육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아기 맞춤형 마사지 교실이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로 나뉘어 전문강사 지도 아래 산모와 아기 15쌍을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된다.

마사지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장발육에 큰 도움을 준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 면역력 향상과 소화기능, 숙면, 촉각 발달 등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마사지를 통한 아기와 정서적 교감은 물론 참여자 간 육아 경험 공유를 통해 육아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마사지와 더불어 육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된 엄마들에게 유용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전후 프로그램



로그로 다양하게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과 더불어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공예 아기용품 만들기 등 '아가마중 DIY 임신부 태교 교실', 숲 산책과 명상을 통해 건강한

## 전남도, 청정 수산물 안전한 판매망 확보

### BGF리테일·카카오와 수산물 유통망 확대 업무협약

전라남도는 우수 수산물 판로와 홍보 확대를 위해 BGF리테일,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전라남도도와 BGF리테일, 카카오는 '전라남도 수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전라남도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준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김정민 카카오 이사장과 1만여 서울시민 등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선 올해 편의점 김밥용 김 약 120억 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 간편식 재료 사용과 신메뉴 개발에 전남 수산물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동해 공동주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한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고 홍보(전남 어가돕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메이커스'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알뜰한 가격으로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받고 어업인에게 제값을 받으면서도 재고가 없게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돕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맛보고 더 많은 생산자를 돕는 선순환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며 "전국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행사에서 김정민 (주)카카오 이사, 이준준 (주)BGF리테일 대표와 전남 수산물 판매·홍보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사)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연달아 선정되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문학관에 상주작가를 배치해 지역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올해 2,478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원화 상주작가와 함께 문학관 소장유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원고를 작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다.

문학관의 문화예술진흥 거점 육성과 문학 콘텐츠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총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백련재 문학의 집과 연계, 해남으로 글을 쓰러 온 입주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 입주동기 등을 음악을 결합한 토크콘서트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군민들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군민들과 문학으로 소통하고 걸실 맺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이원화 상주작가와 함께 문학관 소장유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원고를 작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구례군,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전국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3년 연속 지정

#### 구례에서 보내는 여름방학, 교원 연수와 관광을 연계하는 1석 2조 인기 만점!



전남 구례군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는 소속 시설인 '지리산역사문화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이 전라남도연수원으로부터 전국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지정됐다

'전국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전라남도연수원이 매년 연수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후 지정한다.

지리산역사문화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은 시설을 전국에 홍보하고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매년 환경 선생 유적지, 쌍산재, 구례수목원 등 구례 명소를 연수 프로그램의 현지 답사지로 포함시키고, 구례 동편제 소리 알리기, 상임불 체험 등을 새롭게 추가

하는 등 알차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3년 연속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두 시설에서는 전 대학교수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역사·문화·생태·목공 체험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구례를 방문해 연수도 참여하고 휴가도 보내는 일정으로 인기가 높아 2021년부터 4회 110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김순호 군수는 "두 시설의 전국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이 전국적으로 구례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화순군, 17억 투입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사업 신청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LPG화물차·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화순군은 관할지역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을 위해 17억 1840만 원을 지원한다.

화순군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18대 14억 3400만 원)'은 세부적으로 4개 사업으로 나뉜다.

그 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2대 1400만 원) △보조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사업(10대 4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개소 1억 8000만 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3개소 9000만 원) 등 4개의 사업이 더 있다.

화순군은 14억 3400만 원을 투입해 518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을 5등급은 물론 4등급까지 확대 지원한다. 화순군은 총 8억 5000만 원으로 400대의 노

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사업비 1440만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2대)과 보조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사업(10대)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순군은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추진 예정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유 등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투입할 예산은 9000만 원으로 3개소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모두 현재 추진 중으로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신청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 보호와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군민 소방안전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해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1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소방'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공식기념일이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박준로 영양군 부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박홍열 경상북도의회 의원, 심학소 안동소방서장 등 각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

됐다. 한편, 유공자 표창은 국회의원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17명이 수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항상 힘을 보태준 엄주기, 김학순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맞이하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소방안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 전통시장 봄봄봄(가봄,사봄,와봄)페스티벌 추진

네이버 전통시장 특별관 온라인 특판전, 매일 선착순 30% 할인 쿠폰 발행

경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네이버와 함께 경상북도 '전통시장 봄봄봄(가봄, 사봄, 와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3월 22일 ~ 4월 19일까지 3주간 네이버에 개설된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에서 진행되며, 임점된 30여개 점포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행사기간 중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을 검색해 링크를 통해 이동하거나 네이버쇼핑의 '기획전' 및 '동네시장 장보기' 메뉴를 통해서도 도내 전통시장 상품

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경북의 전통시장에 가보고, 사보고, 다시 와본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봄봄봄 페스티벌은 봄을 맞아 새롭게 리뉴얼된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을 홍보하는 한편, 동네시장 장보기(권역 1일 배송)와 전국배송(일반택배)이 가능한 도내 전통시장 30여개 점포 선정으로 상품할인, 장바구니 할인 등 쿠폰 지원과 개별 점포 홍보도 병행한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은 경북도와 네이버 협업을 통해 2021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시장 진

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특판전이 소비자들에게는 대형마트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전통시장의 엄선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은 온라인 진출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핵심 전략과 디지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병행해 경북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스페인 세비야 총회 참가

권기창 안동시장, IAEC 세비야 총회서 112개 회원도시와 맞손

권기창 안동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총회 참가단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 문화센터(CaixaForum Sevilla)에서 열린 2023년 IAEC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중요문화에 대항하는 교육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비야 총회에는 IAEC 의장이자 바르셀로나 시장인 아다 콜라우(스페인)를 비롯한 15개국 112개 회원도시의 시장 및 교육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IAEC 총회에서는 정례회의와 상임이사도시회의가 열려 지난해 활동 경과 사항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회원 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도시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 탐방과 교육 관련 전시회 그리고 회원 도시 간 국제교류 및 평생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스페인 세비야 총회

보고, 각 도시 대표단들을 공식 초청했다. 또한, 세비야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두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등 향후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 세계 교육 도시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의 교육정책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안동에서 개최된 IAEC 세계총회의 성과를 회원 도시와 나누며, 국제교육도시, 세계유산 대표 관광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안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 참가단은 총회 참가에 앞서 20일 IAEC 사무국이 있는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해 '제16회 안동 IAEC 세계총회'를 개최한 인연을 이어 바르셀로나시와 교류의향을 체결했다. 향후 두 도시 간 국제교육도시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교육도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Educating City)은 1994년 창설돼 현재 35개국 500개 도시가 가입된 교육 관련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조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또다시 혁신적 사업 추진으로 일냈다

- 윤경희 청송군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고립가구 감소에 최선”
- 청송군, 경북 최초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나서



청송군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송군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경상북도 최초로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독사 및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송보건의료원과 연계를 통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가구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신천 둔치 산책로에 그늘 있는 숲길 만든다!

대구시·공공기관 협업 MOU 체결하여 『푸른 신천숲』 조성

-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및 6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발사업 지장 수목 재활용
- ▶보행자 그늘 제공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20일(월) 오후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한국산단단지공단,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을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신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그늘이 있는 걷고 쉬기 좋은 녹음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7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지 내 수형이 뛰어나고 조경가치가 있는 지장수목을 신천에 옮겨심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수목 정보를 대구시에 우선 공유하고, 향후 「수목(SOC자원)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개발사업장 지장수목 재활용 활성화와 수목자원 보존을 위해 플랫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상호 협약하였다. 특히 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발사업지 내 제거대상 수목을 선정하여 기념목 식수행사를 추진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기념목 식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테마별 ① 걷고싶은 하천변 숲길 ② 도심속 머물고 싶은 힐링 공간 미니정원 ③ 시민이 만들고 가

꾸는 썬지수 등 다양한 테마로 '푸른 신천숲'을 조성하며 시민들에게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고 싶은 녹음길을, 동·식물에는 서식처(Biotope)를 제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생태환경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신천을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

금번 공동협약으로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지조성공사 내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대구시와 공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공사가 추구하는 ESG경영이 실천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등 본 협약이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 울진군,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대상업소 모집

울진군은 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방환경 개선사업 대상 외식 업소를 모집한다. 주방 환경 개선사업은 주방 내 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시설, 주방생기기 등의 도색·교체·청소를 위한 시설개선비의 90%(업소당 최대 135만원, 자부담 10% 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개소이며,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에서 '주방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업소주도형 클린 사업으로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

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많은 영업주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업장 목은 때를 제거하고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길었던 겨울을 지나, 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 탄생!

## 세계인이 함께 공부하는 경북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가 탄생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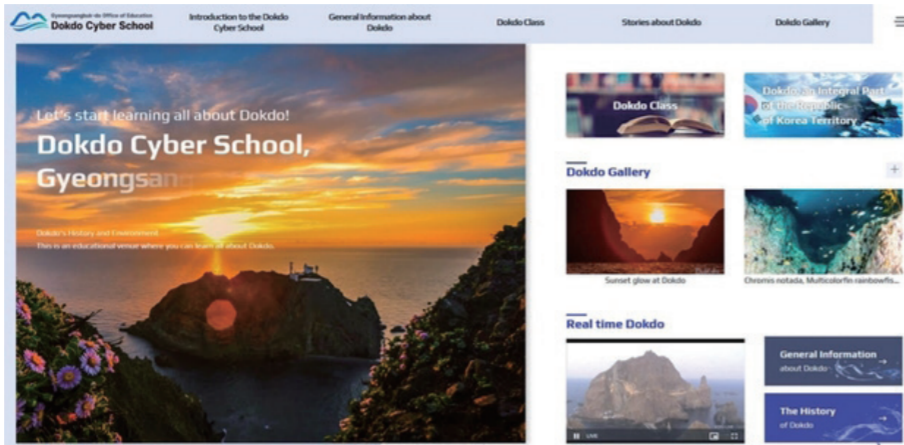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사이버독도학교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과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한 바 있다.

영문 콘텐츠 공개와 동시에 각국의 외국인들이 사이버독도학교에 가입,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수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교실 초급 과정을 이수한 두 명의 외국인 수료자에게 사이버독도학교에 가입한 소감을 들어보고 독도교실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프랑스 출신의 Victoria는 외국인 제1호 수료자다. Victoria는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 특히 다양한 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통해 독도를 접하고 나니 겨울의 아름다운 독도 풍경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독도교실 콘텐츠를 학생들이 대상으로 구축된 만큼 성인들을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가 제시된다면 더욱 독도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 현지의 친구들과 한국 어학당 외국인 친구들에게 사이버독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의 대동중학교 원어인 교사 Brandon은 "늘 울릉도와 독도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으며, 사이버독도학교는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는 큰 장점이 있고, 독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초급 과정에서 다루고 있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독도 지형의 형성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는 방문자 수가 69만 명이 넘었고 독도교실 초·

중·고급과정 수료자는 7,676명이며, 9,218명이 수강 중이다.

외국인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대사 활용, 독도탐방 등과 연계해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독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인과 함께 하는 사이버독도학교를 위해 영문 콘텐츠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개선해 사이버독도학교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주 선비세상, 봄맞이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한가득

## '퍼포먼스 퍼레이드(매주 토요일)', 어린이 동화 뮤지컬 '삼양동화(매일 마지막 일요일)' 공연

영주 선비세상이 봄을 맞이해 가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준비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퍼포먼스 퍼레이드'는 전통 풍물과 라틴 타악팀의 연주를 격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로 여름철(7~8월)을 제외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길놀이 퍼레이드와 농악시연, 대동놀이로 이어지는 전통 풍물 퍼포먼스와 라틴 타악 퍼포먼스로 알차게 구성된 이번 퍼레이드는 한문화센터와 선비마당에 걸쳐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요일 방문객을 위해 26일부터 매일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상상극장이 한음약당에서 열린다. 어린이 상상극장 동화 뮤지컬 '삼양동화'는 '헨젤과 그레텔', '잠깐대동산의 개미와 배짱이', '거울을 깬 왕비' 등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린이 관객은 물론 어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다음달 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토요 음악회 '콘서트 자락'은 토크와 동서양의 다양한 클래식 공연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고품스러운 분위기의 선비세상에서 클래식



식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에 한창인 선비세상에서 새롭게 단장된 '선비소반, 김애화자수공방'이 정식 오픈한다. '김애화 자수공방'에서는 특별한 자수 체험을 소정의 요금을 통해 즐겨볼 수 있으며, '선비소반'은 한식, 양식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곳으로 2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작년 9월 개장한 선비세상은 선비의 고장인 영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

려 선비처럼 먹고, 입고, 즐길 수 있는 K-문화 테마파크이다. 한옥촌, 한복촌, 한지촌, 한글촌, 한식촌, 한음악촌 6개로 구성된 공간에서 선비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입장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일반 1만5000원, 영주시민과 단체는 1만1000원이다. 영주시는 선비세상을 방문하는 유료 입장객에게 영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많은 관광객이 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2023년 지역사회중심재활 협의체 운영

의성군은 20일 11시 의성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협의체는 행정기관, 복지시설, 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등 7개 유관기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의 능력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함이다.

재가장애인의 이·미용서비스, 청소, 세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병원 동행 서비스, 낙상예방 바 설치, 장애인 생활운동교육 및 2차장애발생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자원 간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의 건강보전 사물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족 지지체계가 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장애인들의 필요를 잘 살펴 꼭 필

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며 활용되도록 하고, 기관 간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여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봉화군, 세계 물의 날 맞아 자체 행사 열어



봉화군은 지난 22일 내성천 일원에서 2023년도 봉화군 세계 물의 날 자체행사로 하천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먹는 물의 중요성 인식 제고, 수자원 보전, 정부·민간 등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로 3월 2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기념식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k-water 봉화수도지사 및 한국환경공단 안동임하댐상류통합운영센터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봉화정수장 인근 내성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을 돌며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하천쓰레기를 수거·처리해 2023년도 세계 물의 날을 홍보·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행사 참여자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변화의 가속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대구시 전기·수소 시내버스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20대와 수소 시내버스 2대를 도입한다. 전기 시내버스는 7월부터 운행하고 수소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대·폐차 일정에 따라 10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미래형 교통 체계구축을 위하여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기·수소 친환경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기시내버스 20대를 15개 노선에 배치하면 현재 61대를 포함해 모두 23개 노선 81

대가 운행된다. 전기 충전시설도 3개소를 더 구축해 기존 충전시설 포함 1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는 전기시내버스를 2019년 처음 도입했는데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차내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어 승객과 운전기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는 올해 전기시내버스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를 지난해 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2대를 추가 도입하며 2025년까지 총 10대의 수소시내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공정양육의 시작! "달서 I meet you"사업 추진

대구 달서구는 23일 달서부모를 대상으로 단계별 공정양육 사업인 '달서 I meet you'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 meet you 사업은 아이와 부모의 만남이 즐거움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는 공정양육 사업이다. 사업은 예비부모(달서아이 만나기 전), 학부모(달서아이 만남), 달서부모(달서아이와 성장) 3단계로 나누어, 총 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비부모 대상 사업은 보건소 이용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전 공정양육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만남단계인 학부모 대상 사업은 ▶ 출생신고 부모대상 '아이의 꿈, 긍정의 힘' 미니 동화책 배부 ▶ 초등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찾아가는 "달서아이 학교 가는 날" ▶ "전담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공정양육 홍보"로 구성된다.

성장단계인 달서부모 대상 사업은 ▶ 11개洞 달서부모를 찾아가는 "일일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 이마트 2개소(월배점, 성서점)와 23개洞, 도서관, 경찰서 등 달서 마을 전역에 공정양육을 홍보하는 "다함께 공정양육 해요"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아이를 만나기 전 단계부터 공정양육을 홍보해 아동학대를 사

전에 예방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달서가족이 더욱 행복한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안동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 신속하게! 더욱 두텁게!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다

안동시 희망복지지원단은 3월 21일 길안면 현하2리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운영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현장에 출장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오지마을을 찾아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의료보건 상담 및 당뇨, 혈압체크 등으로 건강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계획추진단도 동참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인 안동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및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이·미용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에게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를 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봉사단체와 밀접한 교류를 함으로써



지역자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시

복지위기가구에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맑은 하천! 깨끗한 예천! 하천 주변 대청결 활동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공무원·환경단체·상하수도 관련 직원 등 100여명 구슬땀



예천군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주변 정화활동을 했다.

군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환경단체, 상·하수도 관련 기업 직원 등 100여명은 담당구역을 나눠 하천과 시가지, 우수로 등을 중심으로 '클린 예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꽂이와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클린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담 달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한 군민 의식이 제일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탄소중립 선도 및 자연과 사람이 중심인 지속가능한 예천 건설을 위해 정기적인 쓰담달리기는 물론 페이스팩·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클린예천 보물마차, 빈병 무인 회수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 누리호 타고 우주시대 선도한다

경남도청 정문에 누리호 12m, 발사대 13m 규모 실물모형 설치

경남도는 22일 도청 정문 입구에 누리호 실물모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실물모형은 누리호 12m, 발사대 13m 규모로 제작됐다.

2023년 도지사 새해 첫 일정으로 KAI를 방문한 만큼 우주시대 경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을 통한 경남의 재도약의 상징물로 누리호 실물모형 선정하고 제작과 설치를 완료했다.

박안수 도지사는 "올해 경남 사천에 개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적극 키워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남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62%(95개 기업)가 입주해 있으며,

생산량으로는 항공 70%, 우주산업이 43%(2020년 기준), 우주항공 종사자는 전국 1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현욱 경남도 행정국장장은 "누리호 발사에 경남의 많은 항공우주기업들이 참여해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누리호로 대표되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누리호 실물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호 실물모형과 함께 도민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조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주시대 중심 경남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우주개발 추진전략과 계획을 담은 '경남남도 우주경



제 비전'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우주시대를 경남이 선도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산·학·연·관 전

분야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재현/기자

### 영덕 청소년센터, '1388영덕멘토지원단 발대식' 개최

1:1 맞춤형 멘토링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이바지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영덕군 여성회관 1층 교육장에서 1388영덕멘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2017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능)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1388멘토지원단'은 2년 이상의 경력에 있는 상담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한다.

또한 지역 아동·청소년 기관과의 연

계를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지지망을 형성해 1:1 맞춤형 멘토링, 매월 정기적인 교육 및 사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센터 임재희 소장은 "1388영덕멘토지원단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생활 관리, 학습 지원, 문화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잠재력 발견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화/기자

##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 개최

광안대교(4.2~4.7.) 및 행사장 주변 도로(4.6.) 단계별 교통통제 예정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표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를 오는 4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엑스포 유치 붐업의 일환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우수성과 대규모 행사 개최 역량을 보여주는 이벤트로 기획됐으며, 부산의 매력 어필과 동시에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어 유치 경쟁구과의 차별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보 열기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는 기존에 광안리, 해운대, 남구 3곳에서 연출되는 '부산불꽃축제'와 달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만 펼쳐지며, 차별화 포인트로는 ▲음악과 드로잉 영상을 통한 유치기원 메시지 전달하는 영상 내레이션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초대형 불꽃 피날레와 2030엑스포 부산 대형 문자 불꽃 퍼포먼스 ▲광안대교 조명과 불꽃, 멀티미디어시스템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불꽃연출 등의 전략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사전행사인 ▲불꽃 토크쇼, ▲축하공연, ▲유치기원 카운트다운과 본 행사인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 토크쇼'(19:30~20:10)에서는 장내 스피커를 활용한 라디오 형식으로 엑스포 관련 홍보 및 시민사연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엑스포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 사연을 소개하고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꽃 토크쇼 내 식전 분위기 고조를 위한 예고성 불꽃이 3회에 걸쳐 시연될 예정이다.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밴드 '카디'의 '축하공연'(20:10~20:25)을 통해 불꽃쇼 전 장내 열기를 더하고, '유치기원 카운트다운'(20:25~20:30)에서 부산의 화합과 유치 열망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카운트다운을 진행한다. 카운트다운은 역대 엑스포 개최지와 함께 마지막 2030년 개최지로서 대한민국, 부산을 나타내어 유치 열망을 더하고자 한다.

메인 행사인 '불꽃쇼'(20:30~21:00)는 열정의 나라 대한민국인 큰 파도와 같은 뜨거운 열망과 의지, 바다를 움직이는 파도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부산을 표현한 '케이-웨이브(K-Wave)'를 주제로 약 30분 동안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된다. 특히 광안대교 배경으로 대표 불꽃인 나이아가라를 시작으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불꽃 연출

과 내레이션을 통해 범시민적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사단에 부산만의 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대형 국제행사를 치러낸 준비된 도시로, 시민들의 응원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행사장에 방문하셔서 유치 열기를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부산시, 정부뿐 아니라 기업 등 모두가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뭉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 어느 경쟁국보다 유치에 대한 진정성과 열망이 강하다"며, "올해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구조물 및 조명, 연화 등 설치 및 철거를 위해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광안대교 차선별 부분 통제하며, 행사 당일인 4월 6일에는 광안대교 상층부(남구 방향)를 오후 3시 30분부터, 하층부(해운대 방향)를 밤 6시 30분부터 통제하고, 광안리행사장 주변도 구간별 통제할 예정이다. 다만, 평일에 개최되는 만큼 차량 2부제 권고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송진/기자



### 달성군,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상 2년 연속 수상



달성군보건소가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암센터가 주최한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작년 유공기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국가 암 관리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기관에 표창하고, 암 관리사업 설명회와 국가 암 검진 홍보캠페인을 위해 개최됐다.

달성군보건소는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로비에 국가 암 검진 홍보영상을 방영했으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진기관 찾기 링크가 연결된 카드뉴스를 등록하여 보건

소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1:1 독려전화, 문자 안내 서비스 및 엽서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을 배부하는 등 개인별 암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2년 연속 수상을 거머쥔 만큼 앞으로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홍보와 암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경주시, 2023년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 개최... 25일 일부 교통 통제

중·고교 엘리트 선수들과 더불어 올해부터 일반부(런크루) 신설 운영

국가대표 마라톤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39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경주에서 개최된다.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는 대한육상연맹과 KBS, 조선일보, 코오롱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며, 경주시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경북도 등이 후원한다.

국내 최대 중·고교 마라톤 대회로 6개 구간 42.195km, 중학교 4개 구간 15km코스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마라톤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일반부(런크루)가 신설되어 고교 부문과 동일하게 6개 구간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는 팬데믹 여파로 9월로 개최 시기가 연기됐지만 올해 대회는 예전처럼 3월에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학교인 경기체고(남), 서울체고(여)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고교 1팀과 중학교 16팀 그리고 일반부(런크루) 10개팀, 총 44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성공적 대회 진행을 위해 6개소의 중계지점에 풍물단을 운영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거리응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대회 개최를 위해 보문관광단지

지와 도심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오롱호텔 삼거리에서 보문힐튼 호텔 △분황사~팔우정~경주역~터미널 △무열왕릉~오릉~대릉원 △동궁과월지~동일전~불국사역 등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마라톤 국가대표의 산실로 자리 잡은 본 대회가 매년 경주시에서 개최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 '식이위천' 어려운 이웃 적극 지원 강조



박상돈 천안시장이 '식이위천(食以爲天,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을 인용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장에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월 읍면동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부문화 확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사전에 회의 주제로 선정된 '기부문화의 시민사회 정착 방안'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냉장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 각 읍면동장에게 맞는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적으로 ▲적십자사회비 기부확산을 위한 지역별 시민협의회 구성과 기업인의 지정기탁 활성화 ▲기부저금통 배부 운영 ▲SNS 기부증서 발급 ▲기부 시민에 대한 예우를 높이

는 홍보 현수막 등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읍·면·동별로 공유냉장고를 확대 설치·운영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품업체 지정기탁 활성화와 수요에 따른 물품지원 다양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박상돈 시장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반문해보라"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면을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해 그 해답을 찾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며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적십자사회비에 대해 읍면동장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최정근기자

### 전국 롤러스포츠인, "3월 제천으로 모인다"

#### '제43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스피드대회' 개최



지난 2월 유치 확정된 '제43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스피드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천롤러스포츠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 대학 및 일반부 227개팀 선수단과 관계자를 포함해 700여명이 참가해 금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엘리트 대회로, 내로라하는 전국 인라인 선수들이 경기에 대거 참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2월부터 현재까지 1천여명이 현장 적응을 위해 지역 내 체류하며 훈련하고 있다. 통상 인라인 종목은 원활한 경기를 위해 트랙적응 훈련이 필수로 알려져있다.

경기는 200m 트랙 종목부터 10,000m 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빠르고 박진감넘치는 인라인 종목 매력에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선수들은 추운 동계기간 땀으로 갈고닦

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천에서 '제19회 항저우아시아 게임 롤러국가대표 선발전'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으로, 일부 선수단은 지역에 계속 머물며 연습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천롤러연맹 관계자는 "봄을 맞아 롤러종목 대회 개최가 지역경제 효과 증대를 기대하며, 특히 '연말까지 계속되는 롤러스포츠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가 경제효과가 높은 '롤러국가대표 선발전'의 내년 경기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로드트랙(400m) 등 시설확충을 통해 이 종목 대회 장기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 "미래먹거리 확보"...3조원 투자유치

### 도, 지역 최초 데이터센터 등 3조 232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힘센충남 경제 실현

충남도가 2조 745억 원이 투입되는 데이터센터 건립 등 16개사 총 3조 23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경제가 튼튼한 힘센충남'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신동현 천안부시장 등 6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허충희 제이에스비 대표이사를 비롯한 16개 기업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6개 기업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 2427㎡ 부지에 총 3조 232억 원을 투자하며, 2646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사는 "이번 투자로 충남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첨단소재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게 됐다"며 "충남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길면 도의회 의장도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먼저, 2조 745억 원으로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데이터센터는 당진 송산2 일만산단 4만 3188㎡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시행사인 아이디씨당진제일차는 202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신규고용 인원은 1000여 명이다. 공장을 이전하는 3개사는 제이에스



비와 씨앤디세미, 하이게인안테나로, 담배필터 업체인 제이에스비는 천안 성거일만산단 5981㎡ 부지에 320억 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 공장을 이전한다.

반도체 장비·부품 업체인 씨앤디세미는 천안테크노파크일만산단 4704㎡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평택 공장을 이전하고, 지구국안테나 업체인 하이게인안테나는 150억 원을 투자해 논산시 부적면 개별입지 1만 6529㎡에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업체 중 천안시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한창이제엠이 147억 원을 투자해 입장면 개별입지 8827㎡에 공장을 증설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인 천일전공은 65억 원을 투자해 광덕면 개별입지

7804㎡에 공장을 증설한다.

아산시에는 위탁급식 업체인 D사가 850억 원을 투자해 여치일만산단 3만 5844㎡ 부지에 식품공장을 신설하며, 디지털일만산단에는 반도체칩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1700억 원을 투자해 8390㎡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 음압면 개별입지 3874㎡ 부지에는 중장비 부품, 지게차 업체인 우진이 4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논산시에는 샌드위치판넬 업체인 청암이 200억 원을 투자해 상월면 개별입지 6만 6000㎡에 공장을 신설한다.

당진시 합덕면더스파크일만산단에는 반도체 생산용 배관 업체인 건지이엔지가 1000억 원을 투자해 4만 6280㎡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건설용 철강재 업체인 NI스틸은

120억 원을 투자해 송악읍 개별입지 3만 82㎡에 공장을 증설하고, 건설용 철강재 업체인 삼운은 290억 원을 투자해 순성면 개별입지 8만 1005㎡에 공장을 신설한다.

예산군 제2일만산단에는 반도체용 케미컬 업체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000억 원을 투자해 12만 847㎡ 부지에, 전자재료용 케미컬 업체인 한국알콜산업이 1500억 원을 투자해 4만 9587㎡ 부지에, 반도체용 케미컬 업체인 퓨리티 1000억 원을 투자해 3만 3485㎡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도내에는 1조 2380억 원의 생산효과와 388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업의 부지 조성·장비 구매 등 건설로 인한 도내 효과는 생산 유발 4조 826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4931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 침체와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인 만큼 충남은 여러분의 투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아산시새마을회, 통영시새마을회와 이순신 축제 교류 협력

아산시새마을회가 지난 20일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홍보하고 새마을운동 교류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통영시새마을회를 방문했다.

아산시새마을회와 통영시새마을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두 도시 대표축제인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서로 홍보하고, 새마을운동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만남을 추진했다.

허보선 아산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협치팀장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소개하며 "통영시 새마을회 회원분들이 축제 기간 중 아산에 방문해 충무공의 도시 아산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는 이순신 장군 출정행렬, 국내 최대규모의 군악의장 페스티벌,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등 완전히 새로워진 명품 콘텐츠로 가득하다"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는 원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선정 통영시 문화예술과 문화확충제사업팀장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개최된다"며 "삼도수군통제영 수문장 교대식, 해상군점, 한산대첩 재현, 통영 거북선 노젓기대회 등 3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니 많은 흥

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홍석 아산시새마을회장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프로그램 중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에 통영시새마을회 회원을 초청하고 싶다"며 "통영 새마을 가족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철원군, 오대벼 맞춤형 재배 설명서!

오대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2년 육성된 이래 현재까지 40여년동안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육성된 벼들을 살펴보면 오대쌀의 명성에 버금갈만큼 고품질의 품종 개발이 되고 있고, 재배법 또한 개발 품종에 맞는 적정 재배법이 개발되어 재현을 및 도정수율이 높은 품종들이 철원 오대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대벼는 조생종이라 타지역보다 먼저 시중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식탁에 추석 전 햅쌀이라는 의미로 다가갔지만 재배적인 측면에서 오리지 조기재배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진정한 오대쌀의 밥맛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지 못하는 단편적 모순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철원군과 농촌지도사회, 쌀연구회,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오대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재배를 하여 제대로 된 오대쌀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철원오대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철원군은 다음과 같이 오대벼 제대로 심기 운

동을 펼치고 있다.

위와같이 오대벼 맞춤형 재배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오대벼 제대로 심기 운동을 실시하면 기존 재배대비 재현율을 3% 이상 높일 수 있고, 특히 오대쌀의 심복백미의 문제가 되는 유택미를 현저히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RPC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정수율을 5% 이상 높일 수 있어 RPC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위 표와 같이 4월 이앙했을 때 완전미율은 68.1~74.8%이나 5월20일 이후 이앙 시 83.2~90.2%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택미를 또한 조기재배 대비 적기이앙 시 10% 이

상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대벼는 그동안 소비자의 입맛과 감성을 자극하면서 철원의 품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 명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전국 최고의 쌀이라는 드높은 자리에서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은 농업인 스스로 기본에 충실한 재배 매뉴얼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철원쌀과 쌀 재배농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대벼 조작기 재배는 이제 그만하고, 추석 전 일찍 재배되는 맞춤형 신품종 등을 심어 철원 오대쌀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세나기자



## 원주 물수호대 물 절약 이벤트 "수(水)장을 찾아라!"

원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물 절약 행동을 촉구하는 '수(水)장을 찾아라!' 온라인 시민 참여 이벤트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3년 UN 물의 날 캠페인 'BE THE CHANGE'에 발맞추어 개인의 작은 실천을 통해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물 절약 행동 후 인증 사진을 첨부한 뒤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폼 주소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 '수장을 찾아라!'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 절약 행동을 많이 하거나 이벤트에 많이 홍보한 우수 참여자 5명과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관계자는 "물 절약 행동을 실천하고 주변과 지역사회에 이를 홍보하여 참여를 촉구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 대구시, 바이올린으로 듣는 세계 거장들의 선율 배원희 바이올린 리사이틀



에서 열린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콰르텟 그룹이 수상자로 호명됐다. 그 이름은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가 속한 '에스메 콰르텟'이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내악 음악 홀인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2018년에 한국 연주자들로 결성된 팀으로는 최초의 우승을 이뤄냈다는 점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다.

제1바이올린 리더로서 '에스메 콰르텟'을 이끈 '배원희'가 3월 30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솔로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서 줄 예정이다.

배원희는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3학년 재학 중 도미해 미국 커티스 음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영국 왕립음대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식 후원하는 영국왕립음악대학 협회 ABRSM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졸업 독주회에서는 심사위원 전원 만점으로 찰스 황태자에게서 직접 특별상을 받았다. 만 11세 때 서울 시향과 협연 무대로 데뷔한 후 러시

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07년 이탈리아 리피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파가니니 특별상을 수상하여 한국인으로서 25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공연에서 배원희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MWV Q26,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No.2 G장조, Op.13과 슈베르트 판타지 C장조, Op.159, D.934 전 악장을 선보인다.

특히 악장마다 변화하는 빠르기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슈베르트 판타지 C장조를 배원희의 섬세한 바이올린 연주자법으로 안정감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다양한 작곡가의 곡들이 준비되어 관객들이 특정 작곡가의 선율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박창근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관객들이 바이올린의 선율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란다. 3월 16일, 성공적으로 '아티스트 나우 프로그램' 문을 열었던 기세를 이어받아 3월의 마지막 공연도 훌륭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순천 출신' 개그맨 황제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 위촉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2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개그맨 황제성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황제성은 순천 출신으로, 최근 샘스미스의 신곡 '언홀리(unholy)' 커버영상을 공개해 통합 조회수 2천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핫한 개그맨이다.

조직위는 뉴미디어 시대, 황제성의 재미 있는 영상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을 통해 2023정원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노관규 이사장은 황제성에게 명예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하며 "국내외를 넘나들며 현재 가장 사랑받고 계신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2023정원박람회는 전 세계에 탄소중립 모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도시의 모델을 보여주는 장으로 '일류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인 이번 박람회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황제성은 "고향 순천을 알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영광이고, 이제는 순천의 자랑



▲ 지난 21일 순천출신 개그맨 황제성이 2023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다"며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과 순천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명예 홍보대사로서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박람회장 전반을 둘러보기도 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3월 31일 동천수상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병수/기자

# 인천시, 제10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에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선정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제10회 수상자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이지호 관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이경성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상이다. 2013년 미술사학자 조은정을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 이래, 작년까지 아홉 번에 걸쳐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평가들에게 수여했다.

국내 미술상은 대부분 작가를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에 반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근현대 미술이론 연구자, 평론가를 비롯해 학예연구사(관), 미술교육가, 미술행평가, 미술계 개척자 등 작가 이외의 한국 미술이론과 현장에서 다양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해 여타 미술상과는 차별성과 의의를 가진다.

인천시는 올해 제10회 본상 수상자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열·미술평론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순·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본상을 수상한 이지호 관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를 전공하고, 프랑스 Paris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

여 받았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대전시립이응노미술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며 미술 현장에서 대중들과 예술적 경험을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 미술관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예술문화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특히 해외 유명 작가 전시를 지방에 유치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과 세계 미술관과의 성공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이지호 관장을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이론가상인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선정을 통해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미술이론가상의 권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인천시립박물관 개관기념일인 4월 1일이 주말인 관계로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3시 박물관 로비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이경성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최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최 이경성 선생의 자녀인 이은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 정읍시, 트로트 가수 김용임·김태연·방서희 홍보대사 위촉

## "문화·관광·먹거리 등 정읍의 숨은 매력 널리 전파할 터"

정읍시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용임 씨와 방서희, 김태연 양을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지난 21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용임 씨와 방서희, 김태연 양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 속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인기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고, SNS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읍을 알리며 시정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임 씨는 2012년 정읍시와 정읍문화원이 공모한 가사에 곡을 입혀 발표한 노래 '내장산'을 부르며 정읍시와 깊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내장산'은 아름다운 노랫말에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내장산 홍보에 효녀 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00만 원의 음원 수익을 올리며 정읍시 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트롯'을 비롯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장산' 노래가 널리 불려 졌으며, 방서희·김태연 양도 각종 매체를 통해 '내장산'을 열창해 정읍 내장산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방서희 양은 정읍시 용동면 '용동청결방앗간' 외동말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로 온 동네를 울리고 웃기며 이름을 떨쳐 왔다.



2018년 '전국노래자랑 정읍시' 편에서 MC 송해 선생과 '아버지와 딸'을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또 KBS '노래가 좋아'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트로트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방송프로그램인 '장윤정의 도장 깨기'에서 장윤정의 코칭으로 완벽한 노래를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태연 양은 정읍 동신초등학교에 재학하며 정읍시 국악원에서 국악을 공부했다. 4세에 판소리와 민요를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최연소 대상과 박동진 판소리 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한국 대표로 공연하기도 했다.

특히, 인기리에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2'에서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며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는 형님'과 '대한외국인'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예능 천재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들 3명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풍성한 역사와 문화,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트로트 열풍에 맞춰 각종 지역 행사와 방송 등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정읍시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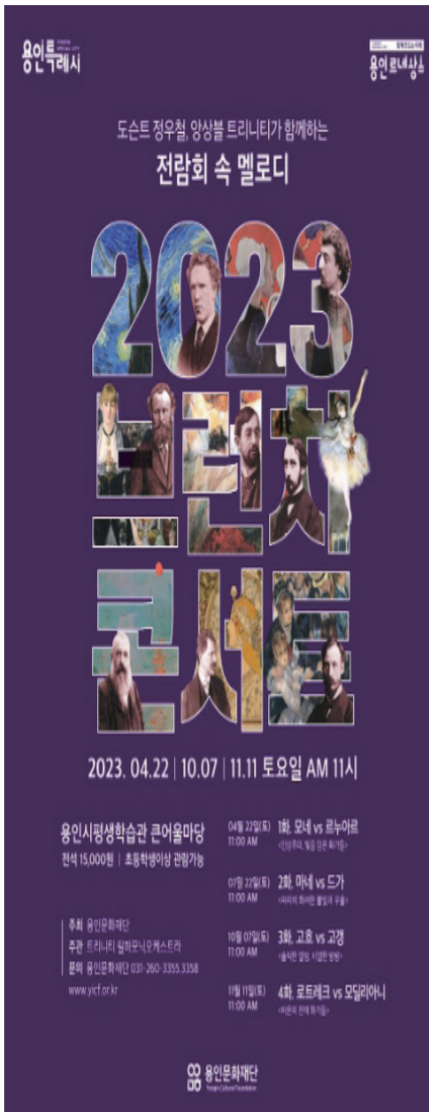
최하은/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 용인문화재단 '2023 브런치 콘서트 - 전람회 속 멜로디' 개최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4월 22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2023 브런치 콘서트 - 전람회 속 멜로디'를 선보인다.  
 '브런치 콘서트'는 4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7월, 10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도슨트 정우철 해설가와 함께 진행된다.  
 4월, 10월, 11월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을 트리니티가 연주하고, 7월에는 트리니티 목관 5중주의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지는 예술의 향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매회 새로운 주제의 인상주의 화가들의 삶과 이야기를 그 시대의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 음악과 미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공연별 주제는 ▲4월 22일 모네 vs 르누아르 '인상주의, 빛을 담은 화가들' ▲7월 22일 마네 vs 드가 '파리의 화려한 불빛과 우울' ▲10월 7일 고흐 vs 고갱 '솔직한 열정, 치열한 방랑' ▲11월 11일 로트레크 vs 모딜리아니 '비운의 천재 화가들'로 구성됐다.  
 본 공연은 티켓가 전석 1만 5천 원으로 초·중·고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 경남도, '소장 미술품 특별전: 고향의 봄' 개최

박생광의 '십장생(학)', '금산사의 추녀', 이성자의 '샘물의 신비Ⅱ' 등 경남도 및 도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86점 작품 전시

경남도는 9월 15일 경남도지사 관사를 개방한 이래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72일간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에서 '경남도 소장 미술품 특별전: 고향의 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장품 특별전 주제인 '고향의 봄'은 관사 개방 이후 처음 맞이하는 봄날 옛 도지사 공관(현 도민의 집)에 전시되어 있던 '고향의 봄'이 다시 도민에게 재공개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 외에도 경남도와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생광의 '십장생(학)', '금산사의 추녀', 이성자의 '샘물의 신비Ⅱ' 등 주요 작품 86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창락의 '고향의 봄'은 흥난파 작곡, 이원수 작가의 국민가요인 고향의 봄 노랫말을 상기하며 제작된 작품으로 1983년 7월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신축 이전한 이듬해인

1984년 4월에 지어진 경남도지사 공관(현 도민의 집)에 전시되어 있다. 2013년부터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박생광의 '십장생'은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복숭아, 불로초(영지) 등 10가지 소재 중 세 학에 집중한 작품으로 학의 형상을 통해 불로장생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근원을 시각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사의 추녀'는 십장생보다 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해 등장인물 묘사했고, 금산사의 기와와 문양, 그리고 십장생의 학이 배경으로 사용됐는데 자연주의적 재현이 아닌 장식적 배경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성자의 '샘물의 신비Ⅱ'는 1963년 작품으로 작가의 어린 시절, 일본에서 패션을 공부하던 시기,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모두 담은 작품으로 그림의 이미지를 기하학적 도형



의 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 우물이 있는 주변 풍경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을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도와 도립미술관 소장 미술품을 도민들이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내 전역에서 전시하여 민선8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 성동구 응봉산 개나리 축제 개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봄 내음 가득한 응봉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을 축제 슬로건으로 ▲환경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가족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축하 콘서트, 개나리 포토존,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의 첫날인 23일에는 2인조 혼성그룹 느루별과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갬블러 크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환경 메시지 작성 및 개나리 묘목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개나리 묘목심기는 사진 점수를 통해 모집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아름다운 응봉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응봉산 일대에서 개나리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

일에는 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사전공연과 함께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 성동구자원봉사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응봉산 이동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만큼 축제 참가자들은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상 회복 이후 성동구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행사"라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개나리 축제가 이번 3일간 축제를 알차게 준비했으니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봄을 한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재)광명문화재단,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기획단 '광명문화미식회, 청년홍보단 '아리' 모집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개 모집 신청 접수

(재)광명문화재단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시민기획단 [광명문화미식회] 2기와 청년홍보단[아리] 3기를 각각 30여명 공개 모집한다.  
 시민기획단 [광명문화미식회]는 재단 정책과 사업 방향성에 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재단 친환경 사업 제안, 사업 모니터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모집은 올해 재단의 주요 정책 방향인 ▲지역공동체회복 ▲일상이 문화 ▲광명스타일 ▲탄소중립실현 ▲문화자치에 맞춰 관심분야를 나누어 모집하며, 재단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 운영 제안과 신규 사업에 관한 기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홍보단 [아리]는 2021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재단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재단을 알리고 있다.  
 [아리]참여자에게는 홍보 분야 관련 명사 강의, 참여자 네트워킹 등 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는 1인당 참여 가능 횟수를 늘려 더 많은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재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기획단 [광명문화미식회] 2기와 청년홍보단[아리] 3기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용민/기자



## 청주시 꿀단지 된 문화제조창, 재미도 의미도 다 잡았다!

시인 도종환, 문학이 주는 감동 선사

꿀단지가 된 문화제조창의 허니데이 재미도, 의미도 다 잡은 하루였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기획한 「문화제조창 꿀단지 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문을 연 첫 '허니데이'부터 시민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사로잡았다.  
 전시와 공연, 체험과 춤, 나눔과 문학이 주는 감동까지, 문화로 들쭉인 문화제조창 안팎은 5시간 동안 700여명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봄기운이 완연해진 광장은 K-POP 댄스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청주FC, 그리고 공예작가 등 10인이 나눔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애장품과 작품을 착한 시자가에 내놓은 '달달한 옥션'은 참여 시민들의 기분 좋은 호가 경합으로 11점의 기부물품이 모두 낙찰되며 총 25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가장 뜨거운 경합을 기록한 건 충북청주FC의 기부물품이었다.  
 구단 창단 첫 골을 기록한 파울리뉴 선수의 실착 유니폼과 사인볼 등 구단 역사관에 소장될 만한 물품 3종 세트로, 추구매들까지 물려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았다.  
 여기에 다음 경매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청주 홈 개막전 시총화까지 등장에 열린 기부 경쟁을 이어갔다. 두 기부물품의 낙찰가격만 90만원이었다.  
 낙찰자들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기부물품을 소장하게 된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나눔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더 보람이었다"며 다음 '허니데이'에도 '달달한 옥션'에 참여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경매 수익금 전액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튀르키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인 아닌 시인으로 허니데이를 찾은 도종환 시인은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주제로 '달달한 인문학'의 문을 열었다.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문학은 영혼에 물을 주는 일이고, 꽃과 나무가 하는 말을 뼈에 적는 것"이라 말한 그는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은 물론 여러 시인들의 시를 함께 낭송하고 곱씹으며 문학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나눴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시, 그리고 문학과의 만남으로 겨우내 바스락거리고 말랐던 감성이 촉촉해졌다"며 "문화로 재미와 감성, 감동과 나눔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제조창 꿀단지 프로젝트 덕분에 매일 20일마다 돌아오는 허니데이가 기다려질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현장을 찾은 어느 7~80대 어르신은 "이런 행사 덕분에 오랜만에 제조창 내부로 들어와봤다"며 "다시 이렇게 활기차고 기분 좋은 모습 보게 해줘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사과춤을 갖고 다시 왔다"며 주최측에 전달했다.  
 한사코 성함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르신은 사과춤과 마음 덕분에 행사장이 한층 달달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하루를 기분 좋게 들쭉이게 만든 이 프로젝트는 문화제조창이 연



문화제조창이었던 시절, 3천여 명 근로자들의 월급날마다 청주 경기 전체가 활기를 얻었던 것에서 착안해 청주문화재단과 청주시청 임시청사 등 현 문화제조창 근무자들의 월급날인 매일 20일을 '허니데이'로 지정하고 시민 모두가 꿀단지 문화장날을 만끽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었던 일상의 활기를 완전히 회복하고자 기획했다.  
 4월부터는 매일 20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니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야간 전시 관람은 물론 신혼여행처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이머시브 투어 '허니문(허니+문화제조창)', 삶에 달콤함을 더하는 강연 한 스푼 '달달한 인문학', 시민부터 유명인사까지 애장품 경매로 나눔을 실천하는

'달달한 옥션', 전 세계 35만 구독자를 가진 당가당가스튜디오와 협업한 '허니 투 댄스',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체험 '이달의 로크존', 공예에서 예술교육까지 원데이 클래스로 만나는 '별달라 해본 데이DAY'와 '달달한 마켓' 등 풍성한 즐거움이 문화제조창으로 발견음을 향하게 만들 예정이다.  
 청주문화재단 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은 청주를 장날처럼 들쭉이게 만들었던 연초제조창의 월급날은 시민 모두의 월급날이었다"며 "이제 매일 20일, 문화제조창을 무대로 그 힘났던 시간을 또 두들었던 월급봉투의 기분을 문화로 누리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http://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 기부방법 ②

####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